

2025년 신입교육회원 오티

- 일시 : 2025년 2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프로그램실1
- 대상 : 초록동무 / 계는 / 또랑 활동 가족회원대상 부모님.

인천녹색연합

회원과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인천에는 한남정맥에 속하는 숲과 공원 등 녹지가 도시 곳곳에 있고, 하천과 갯벌, 바다와 섬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야생생물이 있다. 산업단지, 항만, 미군기지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관련 환경문제도 다양하다. 이런 환경문제를 시민, 회원과 함께 행동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의 곳곳을 두 발로 누비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4대 강령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는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생명운동의 깃발을 들고 뭉쳤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이다. 녹색은 다양성 존중과 생태계 순환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숲과 나무, 하늘과 바다, 물과 갯벌, 우주에 깃든 존재는 우리와 한 생명이다.

우리는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시민참여와 생활자치를 통해 녹색정치의 기틀을 만든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세상을 만들고자 우리의 지혜와 땀을 모은다.

우리는 사회 약자와 미래세대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한다. 또한 모든 생명을 섬기며 평화의 뜻을 나누며,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다.

<생명존중>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여 생태계 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자연과 생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간섭과 통제를 거부하며, 생명체가 인간과 시장중심의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운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며,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위해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여 육체, 정신, 영의 건강을 되찾는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 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개발 사업을 반대하며,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갯벌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문화를 오래된 미래로 존중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다.

우리는 절제된 녹색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우리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환경권을 존중하며,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극복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보급, 에너지 효율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 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노약자, 청소년, 어린이, 빈민, 여성, 지역 주민 등 사회 약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인천녹색연합 활동의 이해

<야생동식물 보호>

- 양서류 보호활동
- 점박이물범 보호
- 조류모니터링

<생태계 보전>

- 한남정맥 · 공원녹지
- 하천/ 갯벌/ 섬과 해양 보전 : 영종 갯벌 지키기, 송도 람사르습지 보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 기후위기대응 : 탈석탄네트워크

<녹색자치활동>

- 백령도 : 점박이물범보호활동, 생태관광협의체 연계 등
- 영종도 : 영종생태여행 협력, 영종갯벌 인식증진 활동
- 계양구 : 탄소중립마을 운동(태양광에너지 설치, 종이팩 등의 자원순환활동)

<녹색교육>

- 초록동무
- 계눈
- 또랑
- 숲해설가양성교육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 취지. 진행과정 및 내용

<풀뿌리 환경교육>

- 인천교육의 **환경문화** : 인천은 한남정맥을 비롯한 ‘녹지축’, 세계5대갯벌인 ‘서해안 갯벌’, 녹지와 갯벌의 생태연결고리인 ‘하천’, 155개의 ‘섬’ 등 다양한 환경적 특성 존재. 인천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숲, 하천, 갯벌, 섬에서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 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 향상.
- 내가 사는 **지역에서의 환경교육** : 특히 숲교육 같은 경우, 좀 더 작은 단위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지역(6개지역-계양구/부평구/남동구/서구/연수구/영종)으로 나누어 진행. 자원활동교사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 진행.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 6~12세 : 숲 생태교육(초록동무)
- 13세~14세 : 갯벌 생태교육(계눈)
- 15세~19세 : 하천 생태교육(또랑)
- 19세 이상 청년 : 섬 교육(청년인천섬바다기자단 ‘파랑’)
- 성인 : 숲해설가교육(산림청인증)
- 가족 : 가족숲놀이(보호자+자녀)
- 각 활동별로 연초에 1년 동안 활동할 교육생 모집해 매달 1회 진행.
- 1년 단위로 교육생들을 모집하지만, 상당수 대부분이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활동.
- 이에 자연스럽게 인천의 생태 연결성에 대해 직접 몸으로 인지.
-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연안내자양성교육을 통해 자원활동교사를 양성하고 교육을 확장해나가는 시스템 구축.

<자발적인 참여로 만드는 환경교육>

- 순수 100% 자원봉사활동.
- 숲해설가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58명의 자원활동교사(초록동무 45명, 가족숲놀이 2명, 계눈 5명, 또랑 6명)로 활동.
- 자원활동교사별로 연령별, 프로그램별 적정인원(7인~15인)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 진행.
- 자원활동교사는 연 초 워크샵을 통해 1년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내용을 구성하고, 매달 교육 전 답사, 교육 후 평가까지 진행.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고민.

<앞을 넘어 삶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실행하는 환경교육.
- 실제

(계양산골프장대응활동) 2006년부터 불거진 계양산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응하면서 숲 생태교육(초록동무)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정책결정자인 인천시장에게 편지쓰기, 걷기 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계양산을 지키는 활동에 동참.

(갯벌매립대응활동) 송도갯벌 매립과정에서 갯벌생태교육(계눈)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인천연안길 걷기 등에 동참. 더불어 영종도갯벌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갯벌의 변화사항을 기록하면서 갯벌보전의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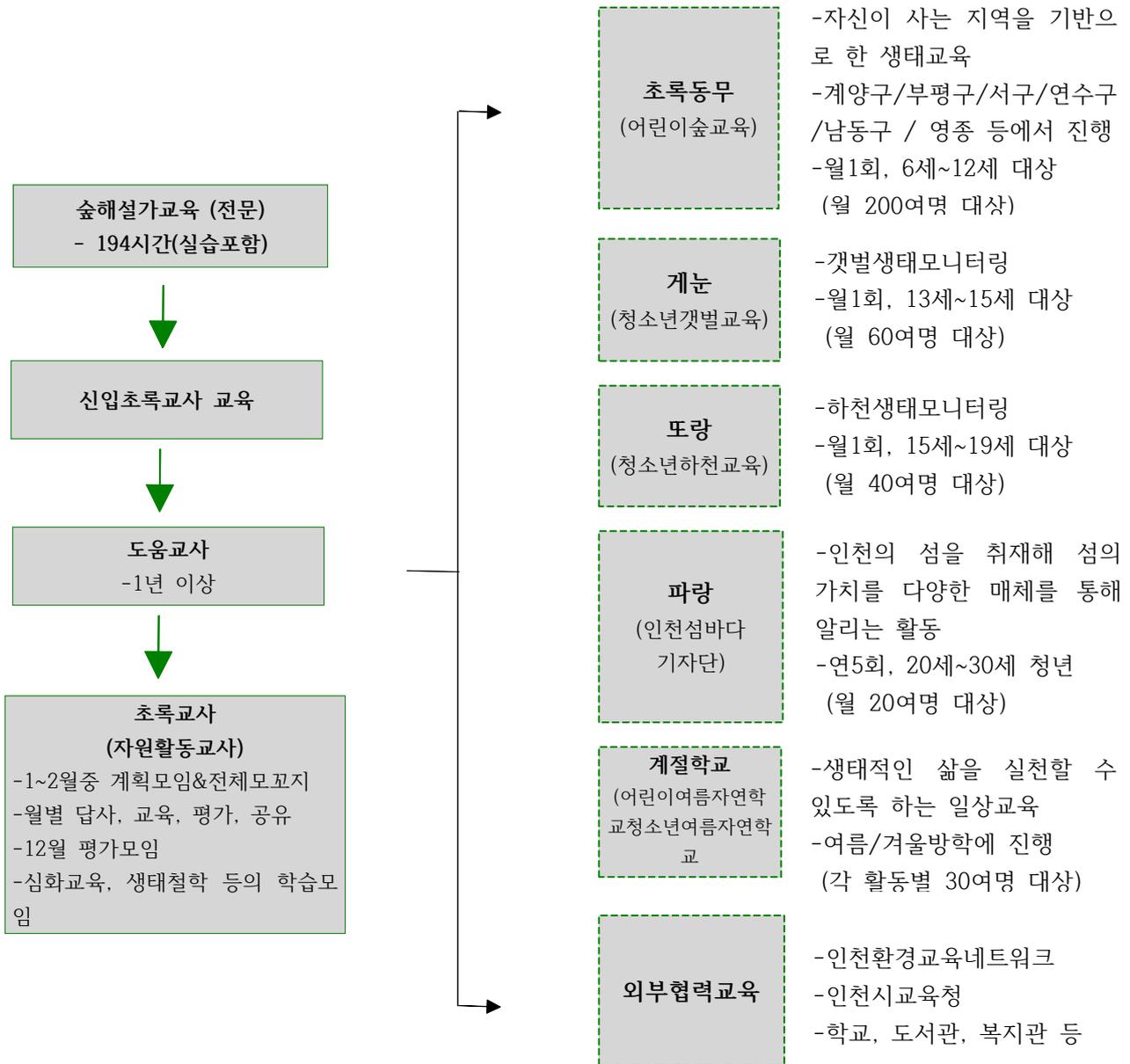
(하천복원활동) 하천생태교육(또랑)도 굴포천이라는 인천의 주요 하천의 생태복원의 방향에 맞게 굴포천 기본조사를 진행, 향후 복원의 기초 마련.

(섬조사활동) 논리적인 사고와 글쓰기가 가능한 17세~18세 청소년들이 1박2일 섬에 묵으면서 주민인터뷰, 생태조사 등을 통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한 기사를 작성해 지역언론사에 게재. 현재는 청년들의 활동으로 진행. 섬생태 환경을 이해.

-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보전활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원활동교사들이 환경단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인천녹색연합 교육활동>

- ◆ 초록동무 : 매달 두 번째 일요일, 오전10시~12시30분 (3, 11월은 12시에 마침)
 - 날짜 : 3/9, 4/13, 5/11, 6/8, 7/13, 9/14, 10/12, 11/9
 - 활동장소 : 계양구-계양산 목상동, 남동구-인천대공원 백범광장, 부평구-원적산공원 외, 서구-연희자연마당, 연수구-청량산공원, 영종-박석공원
 - 준비물 : 돗자리, 도시락, 물(여행자보험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 가입)
- ◆ 계눈 : 매달 네 번째 일요일, 오전10시~12시30분
 - 날짜 : 3/23, 4/27, 5/25, 6/22, 7/27(특별프로그램), 8/24, 9/28, 10/26, 11/23
 - 활동장소 : 영종도 지역 갯벌(달마다 장소가 변경), 봉사활동 인정 연간 활동에 따른 준비비 25,000원
- ◆ 또랑 : 매달 세 번째 일요일, 오전 9시30분~12시 30분
 - 날짜 : 3/16, 4/20, 5/18, 6/15, 7/20, 9/21, 10/19, 11/16
 - 활동장소 : 굴포천, 장수천 일대, 연간활동 재료비 25,000원, 봉사활동 인정,
 - 환경부인증프로그램
- ◆ 계절학교 : 하계 / 동계 계절학교 진행
 - 대상 : 초등 고학년~청소년대상
 - 내용 : 에너지놀이학교, 바다학교, 겨울야생동물학교 등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행동하는 녹색시민 - 시민조사단>

- 양서류 모니터링
- 영종조류 모니터링
- 투명박음벌 조류충돌모니터링
- 가로수 가치평가

<행동하는 녹색시민 - 살림행동>

- 물범 살림 행동 : 물범가디언즈
- 새 살림 행동 : 투명방음별 스티커 부착
- 종이팩 살림 행동 : 우리동네 종이팩 실태조사, 종이팩 수거

<상시 참여활동>

- 달마다 녹색의 날 : 월별 참여활동
 - 2월 공원새 먹이주기, 3월 해양쓰레기정화활동,
 - 4월 영종갯벌탐조 5월 저어새생일잔치, 6월 녹색시민살림행동,
 - 7월 채식요리만들기, 9월 계양산달빛산책,
 - 10월 소청도해양쓰레기청소 11월 해사채취 및 건설폐기물 이해.
- 도농교류 : 백령도 다시마, 미역, 장봉도 김, 불음도 고구마 등
- 영종갯벌 플로깅 : 해양쓰레기수거 활동

<회원모임-회원이 만들어가는 녹색운동>

- 울림, 책산책, 우보호시

녹색인의 수칙

-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만들어간다.
- 섬김과 나눔 아낌과 보살핌을 실천한다.
-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과정을 중시한다.
-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한다.
- 한 달에 한번 이상 자연에 든다.
-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
-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 미래 세대와 약자의 입장을 존중한다.
-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느리게 산다.